리버테리언은 왜 전쟁에 반대하는가

Rothbard and War

Llewellyn H. Rockwell Jr.*

번역: 김경훈 연구원 (미제스 코리아)

1 머레이 라스바드 대(對) 기득권 보수주의 2
2 라스바드는 왜 전쟁을 반대했는가? 4
2.1 무엇보다도, 전쟁은 우리의 도덕을 왜곡한다 4
2.2 전쟁과 전쟁 준비는 경제를 왜곡한다 6
2.3 전쟁과 프로파간다는 다른 민족에 대한 관점을 왜곡한다 . . 6
2.4 전쟁은 문화를 타락시킨다 7
2.5 전쟁은 타인에 대한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한다 8
2.6 전쟁은 현실 자체를 왜곡한다 8
3 우리는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가 9
3.1 우리의 통치자들은 법 위의 존재가 아니다 9
3.2 악마화된 적을 다시 인간화하자 9
3.3 우리가 침략에 반대한다면, 모든 침략에 반대하자 10
3.4 정부는 '우리'가 아니다 10
3.5 전쟁은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이다 11
4 평화가 세워지면 전쟁은 사라지게 된다 12

*미제스 연구소 회장

머레이 라스바드 대(對) 기득권 보수주의

론 폴과 나의 절친한 친구였던, 현대 리버테리언 운동의 창시자 머레이 라스바드의 유산은 위대하다. 미제스 연구소에서 나는 매일 같이 그의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스바드와 관련된 여러 사안 중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전쟁과 평화였다. 그는 미국이 평화적이고 비간섭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CIA의 어용이었던 윌리엄 버클리에 의해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지에 투고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내셔널 리뷰지의 설립자 버클리는 라스바드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노력했으나 다행히도 성공하지는 못했다.

1950년대에 라스바드는 볼커 재단에서 일했는데, 그 당시에 라스바드가 개인적으로 쓴 여러 글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1959년의 사적인 편지에서, 라스바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는 나의 견해를 출판할 잡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내 생각을 약간 고쳐서 좌파 평화주의 출판사에 접근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점점 더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리버테리언 사회운동 전체의 핵심 키워드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리버테리언 평화주의라는 위대한 지적 반-혁명(혹은 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리버테리언 사회 혁명 전체를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강경한 평화적 외교정책이 리버테리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반면 윌리엄 버클리는 해외에서의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미국에서 '전체주의적 관료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역주: 공산주의에 맞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일단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지고 나서야, 국내에서의 국가주의 노력이 마찬가지로 줄어들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간섭의 규모는 보통 축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오래된 간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간섭이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경향이 있다. 전쟁국가와 그것의 우파 옹호론자들이 자기 견해의 최초의 근거 [역주: 소련과 공산권] 가 역사속으로 사라진 직후에 말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우리 리버테리언들은 결코 놀라지 않았다.

알고 보니 소련의 위협은 항상 그렇듯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었다. 소련 정부의 사악함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들의 역량과 의도는 냉전 기간 내내 왜곡되고 과장되어 있었다.

'소련의 위협'이라는 히스테리적 주장에 잠재된 의심스러운 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곧 내셔널 리뷰를 비롯한 냉전 시기의 광범위한 보수주의 운동이 의심할 여지 없이 숭배하는 정론으로 구체화되었다. 머레이가 미국의 군사적 해외간섭이 역효과를 낳을 분 더러 어리석다고 지적하자, 그는 그가 종종 투고하곤 했던 내셔널 리뷰의 블랙리스트로 찍히고 말았다.

내셔널 리뷰를 보수 정론지로 공인하고, (단지 퇴물 정치인들의 자리를 마련해줄 뿐인) 쓸모 없는 싱크탱크를 우후죽순 만들어낸 냉전 시기의 '보수 운동'이 있기 훨씬 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국내정책과 해외정책 모두에 반대하는, 사상가와 지식인들의 느슨한 연합이 존재했었다. 라스바드는 그들을 '구 우파(Old Right)'라고 명명했다.

이 용감한 사상가들 사이에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1950년대 이후 냉전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구 우파의 유산 속에서 비간섭적 대외정책을 부르짖는 목소리는 희미하게나마 잔존했었다. 1966년 기고문에서, 라스바드는 우파단체 '포 아메리카(For America)'에 주목했는데, 그들은 미국의 국가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한 해외에서의 전쟁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및 외교강령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1954년에는 소련에 대한 군사 간섭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한 제퍼슨주의자 루이스 브롬필드에 주목했다. 브롬필드에 따르면:

> 미국 외교정책의 전세계적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외국에 대한 착취와 정치적-경제적 지배를 강제한 유럽의 작은 국가들이 추구했던 구태적이고, 재수없고, 썩어가는 식민 제국주의를 미국 역시 따르며 우리의 존재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확인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체제에 저항하는 각성된 민족들 중 그 누구도 미국에 믿음을 주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의 경제 식민지 체제를 우리가 계승하는 한, 미국 그 자체가 봉건제의 최후의 잔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태도 때문에, 각성하는 민족들은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유토피아를 보장하는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1953년에, 라스바드는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의 논설위원 조지 모겐스턴이 (라스바드가 1966년에 '보수 운동의 어용'으로 전락했다고 탄식한) '휴먼 이벤트(Human Events)'지에 투고한 글에서 미국 역사의 제국주의 전통을 개탄한 점에 주목했다. 모건스턴은 '세계지배'라는 문구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다:

> 전면적 프로파간다가 미국 행동의 필연성이라는 신화, 즉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이 필요했고, 옳았다 라는 인식을 확립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네 번의 전쟁에 간섭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살게 되었고, 안보는 강화되었으며, 세계 평화를 이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가져야할 것이다. 미국의 대외간섭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기만으로 시작되었으며, 루스벨트와 트루먼의 속임수로 끝이 났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외교정책에서의 거짓말의 중단이라는 점을 미국인들이 깨닫게 되어야만, 우리는 합리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셔널 리뷰가 설립되면서, 구 우파의 이러한 목소리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비판하는 유명한 책 'The Roosevelt Myth'로 유명한 영웅적인 존 플린 역시, 군사적 간섭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을 내셔널 리뷰에 투고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라스바드는 왜 전쟁을 반대했는가?

머레이 라스바드는 왜 전쟁을 반대했는가? 그의 생각의 요점을 한 번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전쟁은 우리의 도덕을 왜곡한다

국가 자체가 우리의 도덕적 감성을 비틀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에 의해 수행되었다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일지라도, 정부라면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입받았다. 만약 내가 타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심지어 그것이 정당하다고 한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이웃 전체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아무도 나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을 내가 단지 '부가적인 피해'일 뿐이라 치부한다면, 나는 정신이 나갔다고 여겨질 것이다.

혹은 애플 컴퓨터, 스테이플러 제작사, 사교단체가 일련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천 명 이상을 살해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우리의 분노는 그칠 줄 모를 것이고, 그러한 공격은 민간 기업이 가진 구제불가능한 사악함의 징표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맞선 전쟁을 선포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터전을 파괴하고, 혼란을 선사한 현실을 한 번 살펴보자. 분명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고 분노한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 대부분 역시, 국가의 본성에 대한 진실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국가를 위대하고 진보적인 조직으로 여기는 고등학교 수업내용에 사로잡혀 있다. 전쟁의 공포조차도 그들이 이 결함있는 전제를 다시금 고찰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추후에 비행기를 탈 때, 그들은 바로 그 침략 전쟁에서 싸운 병사들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월마트가 시작한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라 볼 수 있을까?)

한편 우리가 국가를 그저 생산적인 시민사회의 자원을 빼돌려 연명하는, 기생적이고 이기적인 조직으로 이해하고, 국가가 우리 삶의 필수요소라는 익숙한 속임수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모든 미신적 애국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전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불행하게도, 국가의 본질과 그것의 동기를 잔혹할 정도로 사실에 입각해 묘사하는 라스바드보다, 공교육이 제공하는 순진하고 진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불합리한 전쟁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여전히 우리의 교실을 장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든 간에, 여전히 국가는 품위있는 기관이며, 대통령은 그 기관의 지도자로서 아이들이 존경해야만 한다는 메세지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전쟁과 전쟁 준비는 경제를 왜곡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두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어서 딱히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전쟁이 경제의 일부를 성장시킨다는 점은 지극히 타당하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지적했듯, 전쟁은 장례산업을 촉진한다.

그러나 전쟁이 경제 전반의 성장을 자극할 수는 없다. 경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경제는 소비자 요구의 충족이다. 전쟁 중에는 소비자의 요구보다 군부의 요구가 우선시된다. 국민소득 통계는 전쟁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돈을 탈취해서 순항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대중을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는 점은 천하의 바보도 이해하는 점이다. 그러한 소비는 그저 민간영역에서 소비할 자원을 빼앗을 뿐이다.

경제를 왜곡시키기 위해 격렬한 전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정 기업의 연구 및 개발 능력의 절반 이상이 군사적 목적에 투자된다면, 그 만큼 민간 소비자의 요구는 훨씬 덜 충족된다. 특정 기업의 주요 고객이 국방부가 된다면, 그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즉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진다. 국방부의 주요 관심사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쟁상황 혹은 군사국가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업은 비용 혹은 보조금을 최대화하는 기업으로 변모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쟁과 프로파간다는 다른 민족에 대한 관점을 왜곡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전형적인 예시이다. 독일은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는 야만족으로 여겨졌다. 그러한 묘사는 연합국 시민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4년간의 전쟁을 지지하거나 묵인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이미 가난하고 병든 독일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장기간의 아사 작전과 불평등한 조약을 맺도록 정부를 강요했다.

전쟁 후, 국제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짓말과 모욕이 드러나자 사소한 반발이 있었다. 사실 우리의 현대적인 교환학생 제도 역시 1차 대전 이후 전시 프로파간다에 대한 지식인들의 반성에서 비롯되

었다. 그들은 동포들이 열광하는 광신적 애국주의를 목도하였고, 사람들이 더 많은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다면, 추후에는 그런 부류의 악마화가 덜 효과적으로 기능하리라 기대하였다.

이란에서의 평범한 삶을 다루는, 서구에서 제작된 비디오를 보고 대부분의 미국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미국정부가 적대국을 상대로 행한 다양한 증오 캠페인 때문이다. 이란과 이란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악마화가 오래 지속된 덕분에, 미국인들은 이란인이 피에 굶주린 야만인이자, 낙타에 올라타 집단 학살을 모의하는 집단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란인 역시 현대적 도시에서 북적거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들은 대체로 미국인을 좋아한다. 그러나 단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졌을 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와 공통점을 가진다.

이렇듯 전쟁은 우리가 다른 민족을 불필요하거나 열등하다고 여기도록 장려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결혼식이 산산조각이 날 때 미국인은 신경쓰지 않는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결혼식 행사를 취소시킨다면, 우리는 확실히 엄청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더 나아가 만약 미국정부가 테러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런던에 있는 한 아파트를 폭파시킨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다른 예시를 한 번 살펴보자. B국의 지배계층이 A국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그래서 A국이 B국을 폭격하여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몇 년 후 A국 시민들이 그 사건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보복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을 때, 성급한 동료들이 나타나 **"그건 그저 전쟁에 불과했다"**고 소리치며 모든 중대한 도덕적 질문을 일소한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순진한 인간으로 치부되며, 그 의심스러운 충성심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

전쟁은 문화를 타락시킨다

평론가 폴 퍼셀(Paul Fussell)은 **"전쟁문화는 표현의 자유, 호기심의 자유, 지식의 자유 등 문명사회에서 필수적이고 없어선 안되는 요소를 죽여버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미군의 공격이 이라크 군인을 토막내는 장면의 TV

방영을 미국정부가 왜 검열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저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종류의 영상을 보게끔 한다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타인에 대한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한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는 오직 군인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다. 반면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고 더 많은 성취를 안겨주는 위대한 기업가들에 대해, 우리는 부러움과 열등감만을 학습받았다. 확실히 우리는 기업가의 서비스에 감사한 적이 없다.

국가는 언어적 조작을 통해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는 **"조국을 위해 봉사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라크 전쟁은 미국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지도자에 대한 터무니 없는 트집잡기로 개전되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 지배계층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반영한 결과이다. 민간으로부터 막대한 자원을 빼돌려 행해진 그런 임무는 결코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 아니었다.

전쟁은 현실 자체를 왜곡한다

학생들은 군인의 희생 덕분에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배웠다. 불경스러운 범퍼스티커는 미국의 군인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한다. 그러나 미국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 이라크, 파나마, 소말리아에 의해 위협받았을까? 독일조차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을 위협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북아메리카를 침공할 수 있었겠는가?

신중하게 다듬어져온 이 신화는 지금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한다. 전쟁의 신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군인에 대한 미신적인 존경심을 가지게 만들며,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세에 몰아넣는다. 전쟁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과 간섭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전쟁은 프로파간다, 거짓말, 증오, 궁핍, 문화적 퇴보, 도덕적 부패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국민들이 교육에서 국가를 옹호하도록 주입받은 여러 도덕적, 정치적 정당화 중 가장 끔찍한 결과가 바로 전쟁이다. 애국심, 조국, 군가, 국기라는 표장에 쌓여있는 국가는 국민들이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국가와 그 지도자를 멸시하게끔 기만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살해하게 만들기 위해 교육한다.

우리는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가

전쟁은 정말로 나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스바드는 우리가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그 답이 달려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한 번 살펴보자.

(1) 우리의 통치자들은 법 위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여기는 도덕적 규칙을, 우리의 지배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하는 파괴적인 사명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군인들이 정상적인 도덕적 규칙으로부터 면제된다고, 즉 다른 모든 상황에서는 유효한 규범들이 전쟁 중인 군인에게는 보류된다고 생각하곤 한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불구로 만들고 도륙할 때, 오직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유감표현과 함께 그것이 '부수적 피해' 였다는 변론이 늘 제기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민간인이 있다면 그는 사이코패스로 분류될 것이다. 하지만 화려한 직함과 멋진 양복을 곁들인다면, 그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노련한 정치인이 된다.

(2) 악마화된 적을 다시 인간화하자

우리는 적대국 시민을 악마가 아니라 인간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전쟁에서 죽는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오직 프로파간다에만 휘말렸기 때문에 전쟁광이 된다. 지배층이 소유한 미디어가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

하여, 특히 온라인 상의 활동을 통해 잔혹한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즉, 적대국의 사람들도 그저 평범한 인간이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퍼질 수록, 전쟁을 수행하는 기득권층이 '2분 증오' [역주 :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개념으로, 매일 2분 간 적대국과 반정부주의자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의식] 를 수행하는 데 약간 더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상적인 인간성과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한다면, 우리를 둘러싼 프로파간다에 대한 불신이 더 만연해질 것이다.

(3) 우리가 침략에 반대한다면, 모든 침략에 반대하자

우리가 평화라는 대의를 믿는다면, 국가간의 공격적 폭력을 중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지배자들이 평화로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하기 위하여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평화로운 사람은, 모든 형태의 침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통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지배층은 서로 다른 집단이다. 미국인은 미국정부의 외교정책을 논할 때, 절대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된다. 전쟁광 지도자들은 대다수 국민이 공유하는 여론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마치 국민의 의견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거나, 정책수립에 필요한 요소인듯 여기며 외교정책을 논하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울 뿐이다.

(4) 정부는 '우리'가 아니다

이 오판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정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고 착각하곤 하며,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이 곧 자신을 향한 비판과 다름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왜 너는 내 외교정책을 모욕하느냐!"**라는 인식이 박힌 상황에서, 이치에 맞는 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더욱 어려워 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어로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전쟁광으로 만든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냐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잡힌다. 마치 축구팀을 응원하듯 사람들은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 점잖고 선량하기 때문에, 우리의 적수인 '그들'은 괴물이고 사악할 뿐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의로운 정의라고 여기는 어떤 것이든 그들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전쟁광 만큼이나, 반전주의 좌파 역시 자주 정부를 '우리'로 여기는 오류에 빠진다. 그들은 '우리'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목록을 열거하며 국민에게 호소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우리가 아니다. 매일같이 국민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정부의 사이코패스들이 저지른 것이다.

(5) 전쟁은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이다

론 폴은 평화와 불간섭주의가 자본주의와 가지는 올바른 연관성을 복권시킨 정치인이다. 이전 까지, 레닌주의자를 비롯한 좌파 세력은 경제학과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여, 상품의 '과잉생산'을 초래하는 자본주의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전쟁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물론 이 주장은 항상 경제학적 헛소리였고, 정치학적 헛소리이기도 했다. 자유시장은 국제무역을 위해 군사물자를 기름칠하는 기생적 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만약 개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침해에 반대한다면, 모든 지정학적 관계에서도 같은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미제스는 언제나 전쟁과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장기적으로 볼 때, 전쟁과 시장경제는 양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국가들을 위한 계획이다. 국제적 분업으로서의 노동의 출현은 전면적인 전쟁의 폐지를 요구한다. ... 시장경제는 평화적 협력을 수반한다. 시민들이 전사로 변모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대신 다른 무리와 싸우게 된다면, 시장경제는 산산조각이 날 수 밖에 없다.

또 미제스에 따르면,

> 시장경제는 평화적 협력과 상품과 서비스의 평화적 교류를 의미한다. 대량 학살이 오늘의 요구사항일 때 그것은 지속할 수 없다.

자유롭고 간섭받지 않는 시장경제를 믿는 사람들은, 전쟁과 군사적 행동에 특히 회의적이어야 한다. 전쟁은 정부계획의 궁극적 형태이다. 프로파

간다, 검열, 첩보, 사기, 위조화폐 인쇄, 더 많은 지출, 부채 창출, 중앙계획,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자만심 등, 우리가 경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간섭의 총체적 융합이 곧 전쟁이다.

전쟁에 대한 미제스의 견해를 다시 인용해보자:

> 전쟁은 정복당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정복자에게도 해롭다. 사회는 평화적인 노동에서 생겨났다. 사회의 본질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만물의 아버지다. 오직 경제적 행동만이 우리의 부를 창조해왔다. 무기를 쓰지 않는 노동은 행복을 가져다 주며, 평화를 구축한다. 그렇게 한다면 전쟁은 사라진다.

평화가 세워지면 전쟁은 사라지게 된다

프로파간다에 현혹되어선 안된다. 전쟁에 환호하며 국가에 힘을 실어주고 정부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그만두자. 텔레비전의 논란거리와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지난 날의 편견을 잊어버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세상을 한 번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품위있어야 한다.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조 바이든, 존 매케인, 존 볼튼,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네오콘 모두에게 속아선 안된다. 그들의 가장 거대한 정부계획, 즉 전쟁을 거부하자.

다시 머레이 라스바드에게 돌아가보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라스바드는 중요한 우파 및 보수주의 매체인 '내셔널 리뷰'의 블랙리스트가 되었다. 그렇게 그는 사실상 우파진영 전체에게서 소외되었다. 라스바드는 오직 소수만이 구독하는 뉴스레터를 위해서 글을 쓸 수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 동료 월터 블락과 대화하며 라스바드는 전 세계에 오직 25명 정도의 리버테리언만이 있을 것이라 한탄했다.

라스바드의 헌신과 론 폴의 놀라운 본보기 덕분에, 지금의 상황은 훨씬 더 개선되었다. 오늘날,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모든 정당의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진실을 인식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여기에 더해, 특히 고무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간섭주의 외교정책의 필요성을 훨씬 덜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중이 젊을 수록,

전쟁을 일으키는 지배층의 근거 없는 주장이 외면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내가 보기에, 바로 이러한 상황이 머레이 라스바드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그것을 계승하고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임무이다.